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이번 주 시작...사상 첫 '1만원' 관심

1만원까지 140원 남아...경영계 '저지' vs 노동계 '인상' 예고 한은이 불지핀 '업종별 차등적용'...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듯 '캐스팅 보트' 공익위원 교체 변수...'노동계 반발' 진통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이번 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다시 부상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와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 교체 변수로 어느 때보다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만원까지 140원 남아...경영계 '저지' vs 노동계 '인상' 예고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주말을 감안해 이르면 오는 29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동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심의 요청을 받은 최임

위는 다음 달 중순께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1만원까지는 불과 140원(1.42%) 남겨둔 상태로, 물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1만원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다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최저임금 '1만원'이 갖는 상징성이 상당한 만큼 이를 저지하려는 경영계와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당시 시급 9620원인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라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반면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 등을 들어 지난해 최초 요구안으로 1만

221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도 최소 1만2000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불지핀 '업종별 차등적용'...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듯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선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매년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해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 뿐이다. 이후 30년 남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졌다. 지난해에도 격론 끝에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는 올해

어느 때보다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동총연맹은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외면하고 시장 논리만을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임시방편식 정책은 불필요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업종별 차등적용이 실현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공익위원들의 의뢰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난해 그 결과를 최임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차등적용의 필요성 등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업종이지만 규모가 다른 경우 이를 어떻게 구분해 차등적용 할지도 문제다. 예컨대 숙박업 내에서도 큰 호텔과 작은 여관의 차이가 있다보니 업종별 차등적용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캐스팅 보트' 공익위원 교체 변수...노동계 반발 진통 예상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될 오는 5월 공익위원 교체는 심의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3년 임기인 현 최임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5월14일 위촉돼 오는 5월 1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노사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정부 추천인 공익위원에 대해

서는 현재 인선을 진행 중이다.

관심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위촉되는 공익위원 9명이 누가 인선되느냐다. 공익위원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만큼 최저임금 수준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부 유망 가능성도 있으나 노동계는 정부가 사실상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 얘기다.

이 경우 노동계가 '보이콧' 등으로 강하게 반발할 수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첫 회의부터 파행한 바 있다.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밀그림을 그리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이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번 뿐이다.

2022년에는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지만, 지난해에는 시한을 넘겨 110일 만인 7월 19일에야 의결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진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오유나기자

“봄이사 미리 준비”...우리집에 딱 맞는 ‘트렌디’ 가전은?



따뜻한 봄은 새 보금자리를 찾기에 적합한 시기다. 부동산 플랫폼들의 집계 결과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3만여세대가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증가하는 이사 수요와 더불어 새 집을 채우기 위한 신가전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사진 필수템으로 떠오르고 있는 음식물처리

새 집 채우는 신가전 관심 증가

기 역시 그 중 하나다. 음식물처리는 쉽게 부패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단시간에 간편히 처리할 수 있고, 버려진 나가기야 하는 수고로움을 줄여준다.

스마트카라의 '스마트카라 400 Pro'는 15년간 독자 개발한 고온 건조·분쇄 방식으로 음식물의 부피를 최대 95% 제거한다.

2세대 히팅 플레이트로 어떤 음식물이든 가리지 않고 평균 2시간30분~4시간 만에 처리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처리 과정에서 병원성 미생물을 99.9% 고온 살균하고 셀프 크리닝 기능으로 제품 내부 세척이 가능하다고도 보였다. 하루 최대 처리량은 120다.

건조기, 로봇청소기와 함께 3대 가사 해방가전으로 분류되는 식기세척기도 매년 높은 판매를 기록 중이다. 오늘의 집에 따르면 식기세척기 카테고리별은 지난 2년간 약 110% 성장률을 보였다.

일렉트로룩스의 얼티미티케어900은 간결한 크기와 달리 14인용까지 소화할 수 있는 대용량 식기세척기다.

일렉트로룩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컴포트 리프트 기술이 적용돼 한 번의 모션으로 하단

바스켓을 25cm 높이까지 들어올릴 수 있어 허리를 숙이지 않고도 식기 넣기가 가능하다.

최대 110개의 식기를 적재할 수 있는 내부 공간 덕분에 곰솔 같은 대형 식기도 충분히 세척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집중 살균 기능을 사용하면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70℃의 고온수를 10분 이상 분사해 식기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유해균과 바이러스를 99.99% 이상 제거한다고 소개했다. 일체형 세탁건조기도 주목할 만하다.

LG전자의 트롬 오브제 컬렉션 위시폼보는 세탁과 건조 용량이 각각 25kg, 15kg인 올인원 세탁건조기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세탁 후 세탁물을 꺼내지 않고 건조까지 이뤄지는 올인원 제품이다. 제품 높이가 깊이가 커져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다른 국내의 동종 제품들과 달리 기존 동급 트롬 세탁기 한 대와 동일한 컴팩트한 사이즈를 자랑한다.

LG전자의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 건조기술은 냉매를 순환시켜 발생한 열을 활용해 빨래가 마르고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저온 제습 방식으로, 옷감보호에 유리하다. 모터 속도를 조절해 필요한 만큼만 작동하는 인버터 기술까지 적용돼 에너지 효율이 높다.

뉴시스



광주은행 'KIA타이거즈 우승 예·적금' 출시

광주은행이 2024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맞춰 KIA타이거즈의 'V12 우승'을 기원하는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출시했다.

22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오는 7월31일까지 판매하는 해당 금융상품은 대표 스테디셀러 시즌 상품으로 KIA타이거즈의 시즌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올해는 14년간 KIA타이거즈와 함께 한 현역 출신 이병호 감독이 공식 취임한 후 V12 우승 달성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예·적금 판매에도 흥행 조짐이 엿보인다.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은 50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1인 1계좌까지 가입이 가

능하다.

시즌 성적에 따라 최대 연 0.2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85%(기본 연 3.60%)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우대금리 조건은 ▲포스트시즌 진출 시 연 0.05% 포인트 ▲정규시즌 우승 시 연 0.10% 포인트 ▲한국시리즈 우승 시 연 0.10% 포인트다.

'우승기원 적금'은 월 1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정액적립식 상품으로 예금과 동일한 조건의 우대금리(최대 연 0.25% 포인트)를 제공한다.

이슬비기자

출생아 수 반등 언제쯤...올해 첫 인구동향 발표

통계청, 27일 '2024년 1월 인구동향' 발표

2015년 이후 8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출생아 수와 늘어나고 있는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27일 '2024년 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7.7% 줄었고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 하락했다.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모두 1970년 이후 최저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12월 출생아는 1만6253명으로 전년 대비 643명(3.8%) 줄었다. 월별 출생아 수가 1만7000명을 밑으로 떨어진 사례도 2022년 12월(1만6896명) 이후 두 번째다.

올해 첫 인구 동향 발표에서 지난해 12월

보다 낮은 출생아 수가 발표될 경우 1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게 된다. 이처럼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했지만 일부에선 이 같은 흐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주목한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4000건으로 전년 대비 2000건 늘었다. 코로나19로 미뤄던 결혼식이 증가한 영향이다. 새로 가정을 꾸린 부부가 늘어난만큼 올해는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다.

올해 첫 인구 자연감소 규모도 새로운 기록을 쓸지 여부도 주목된다.

국내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른 이후 4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사망자는 35만2700명으로 출생아 수 대비 12만명 이상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국내 인구는 12만2800명이 자

연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고려화된 인구 구조 탓에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월 국내 인구 자연감소 현상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9일에는 '2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1월 산업생산은 건설업 반등에 힘입어 석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월에도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양호한 수치를 보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관심은 반도체 생산이 늘어날 지 여부다.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다가 1월 -8.6%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이 2월 100억5411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3.0% 증가한 만큼 생산도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25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내놓는다.

서선욱기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돌풍



삼성전자가 8일부터 전국 20개 주요 명소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하나로 합친 '비스포크 AI 콤보'의 옥외광고를 대대적으로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여의도 더현대 서울 ▲서울 코엑스 ▲서울 파미에스테이션 ▲강남역 ▲스

타필드 수원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등 전국 주요 랜드마크에서 '비스포크 AI 콤보' 옥외광고를 시작했다.

이번 광고 영상에는 'AI로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번에, 빠르게라는 간결한 메시지를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직관적인 비주얼에 담았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출시 3일 만에 판매량 1000대, 12일 만에 누적 3000대를 돌파하는 등 역대급 흥행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옥외광고에 이어 '비스포크 AI 콤보' TV 광고까지 공개하며 마케팅 강화에 나선다.

김수권기자